

“어눌한 반말은 제 아이디어”

이시훈, tvN '미스터 션샤인' 서 '요시노고' 역 짧은 출연에도 시청자들에 각인...“퇴장 아쉬워”

아버지벨 스승에게도 어눌한 조선말로 “그러면 안 돼요. 알았냐”고 하던 요시노고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배우 본인의 말에 따르면 말을 하도 마음껏 못해서 쌓인 게 터지는 중이라고 했다.

tvN 주말극 '미스터 션샤인'에서 황은산(김갑수 분)의 일본인 제자 요시노고 역으로 짧은 분량이지만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제대로 찍은 배우 이시훈(34·사진)을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났다.

그는 지난 16일 방송분에서 얘기씨 예신(김태리)을 두고 가족 결로 돌아가며 완전히 퇴장했다.

“어느 정도 더 도움을 주다가 떠날 줄 알았거든요. 갈 길이 남았는데 갑자기 퇴장한 느낌이 많이 아쉽죠. 게다가 황은산과 요시노고 가 어떻게 국적을 뛰어넘어 사제지간이 됐는지 사연도 나올 줄 알았는데...”

이시훈은 결국 작품에서 다루진 못했지만 은산과의 관계, 그리고 요시노고의 캐릭터에 대해 상상도 많이 해봤다고 했다.

“처음에는 고가 일본 국적이니까, 황은산의 입장에서 적국의 제자를 품는다는 의미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다가 또 고가 사실은 첩자가 아닐까,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상상도 해보고요.” 이시훈이 요시노고로 활영 며칠 전 갑자기 합류하게 된 것은 작품 속에서도 인상 깊었던 ‘어눌한 반말’

덕분이었다고 한다.

그는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는 다 존댓말이었는데 아래에 ‘재미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기에 제가 오래 알고 지낸 재일교포 선생님 말투가 생각나 반말을 섞어봤다”며 “그런데 김은숙 작가님께서 재밌게 봐주셨는지 아예 그다음부터는 반말체로 대본이 왔다”고 웃었다.

그는 또 “첫 장면이 김갑수 선생님, 이병헌 선배님, 김태리 배우님과 다 같이 마주치는 장면이었는데 다들 제 반말에 웃어주셔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시훈은 김갑수에 대해서는 “중압감이 느껴졌지만 먼저 편하게 다가가 주셔서 감사했다”고, 이병헌에 대해서는 “따라갈 수 없는 연기를 하는 분”이라고, 김태리에 대해서는 “저 나이에 저런 연륜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배우”라고 말했다.

원래 영문학을 전공한 이시훈은 제대 후 진로를 바꿔 대학으로 향했다. 주로 연극 무대에 선 그는 3년 전 연예엔터테인먼트에 동지를 틀면서부터 ‘리턴’, ‘발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등 드라마에도 꾸준히 출연했다.

“언어와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요. 일본어 등 4개 국어를 하고요. 절권도, 승마 같은 스포츠도 연마했죠. 언젠가는 연기에 도움이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연기에 재능은 없는 것 같지만, 이 직업이



참 좋아요. 제가 맘이 많은데, 연극 무대에서 맘을 뽐낼 줄이면 관객들이 ‘성심성 의껏 해줘서 고맙다고 해더라고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값어치 하는 배우’요.” /연합뉴스

초신성, 슈퍼노바로 새 출발

본격 일본 활동 재개

보이그룹 초신성이 ‘슈퍼노바’라는 새 그룹명으로 일본에서 활동을 재개했다.

18일 소속사 SV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초신성은 지난달 일본 무사시노 아레나(경기장)에서 약 8천명의 팬과 재회했으며, 이달 9일 사이타마 문화센터에서 공식 팬클럽 발족식과 기자회견을 열어 팀명을 공개했다.

슈퍼노바는 초신성 멤버 중 성모를 제외한 윤학, 성제, 건일, 지혁, 광수 5인조

로 구성됐다. 성모는 다른 멤버들이 지난 5월 국내 소속사와 계약이 종료될 당시 전속 기간이 남아있었다.

리더 윤학은 9일 기자회견에서 “9년 전 이날 데뷔하고 제2막의 시작을 같은 날 하게 돼 뜻깊고 감동적”이라며 “함께 하지 못한 성모와도 슈퍼노바로 함께 서는 날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초신성은 지난 17일 도쿄 인터내셔널 포럼 A홀에서 5천여 팬이 모인 가운데 4개 도시투어 첫 공연도 개최했다. 이 무대에서 11월 6일 일본에서 발표할 신곡 ‘첵



터 II’ 무대를 먼저 공개했다. 2007년 데뷔한 초신성은 국내 인지도는 낮았지만, 2009년 ‘너만을 계속’이란 곡으로 일본 무대에 진출해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연합뉴스

갓세븐 3집 ‘프레젠티:유’

25개 지역 아이튠스 1위

그룹 갓세븐이 정규 3집 ‘프레젠티:유’(Present : YOU)로 세계 25개 지역 아이튠스 앨범차트 1위를 휩쓸었다.

18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공개된 이 앨범은 브라질, 핀란드, 홍콩, 멕시코, 뉴질랜드 등 25개 지역 아이튠스 앨범차트 정상에 올랐다.

미국에서 5위, 호주-캐나다-그리스-노르웨이-슬로바키아에서 3위 등 여러 지역에서 10위권이 진입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또 타이틀곡 ‘릴라바이’(Lullaby)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애플뮤직, 네이버뮤직, 벅스, 소리바다에서 1위를 차지했다. ‘릴라바이’는 몽환적인 신스 사운드가 인상적인 여반 딥 하우스 계열 팝 곡으로

꿈처럼 달콤하고 행복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다. 갓세븐은 해외 팬들을 위해 이 노래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까지 4개 국어로 녹음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인스타그램 NO1 사주솔루션 더.사주 THE 사주

9월 19일 (음력 8월 10일) www.instagram.com/the.saju KAKAOTALK : themaj

속 시원한 사주풀이 더.사주가 책임집니다!

 子	60년생: 동분서주하지 말고 실리를 찾아가라. 72년생: 무리하게 결정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라. 84년생: 방해가 있어도 좋은 소식이 더 많겠다. 96년생: 이상한 소문에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라.	 午	66년생: 즐거움과 기쁨이 풍족한 날이 되겠다. 78년생: 추진력을 좀더 살리면 더 많은 걸 얻는다. 90년생: 말 한마디에 많은 것이 오고가는 날이다. 02년생: 결별은 최후의 선택임을 알아야한다.
 丑	61년생: 길흉없이 순조로운 하루가 될 것이다. 73년생: 힘들게 노력했던 것에 빛을 보겠다. 85년생: 말어린 사람에게서 좋은 소식을 듣는다. 97년생: 잡다한 생각이 하루를 망칠 수 있다.	 未	67년생: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니 오늘은 가족의 마음을 다스려줘야겠다. 79년생: 어릴때 박력은 무식으로 치부될 수 있다. 91년생: 가까운 사이라도 속마음을 말하지말자.
 寅	62년생: 친구가 생기고 마음을 공유할 수 있다. 74년생: 억지로 모면하는게 더 불리한 날이다. 86년생: 본의아니게 해명하는 처지가 될 수있다. 98년생: 계획에 없던 술자리는 피하도록 하자.	 申	68년생: 과감한 결단력과 자제력을 뽐내야한다. 80년생: 눈 앞의 이익에 현안되어 남을 돕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오히려 득이 적다. 92년생: 남는 시간을 더 알차게 사용해야한다.
 卯	63년생: 지나간 작은 실수로 상심하지말자. 75년생: 경쟁도 좋지만 때론 상황을 관망하라. 87년생: 귀가 얇아 구설이 생길 수도 있다. 99년생: 지금의 고통이 훗날의 약이 될 것이다.	 酉	69년생: 건강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휴식하라. 81년생: 부부지간일수록 대화로 불만을 풀자. 93년생: 동분서주하며 갈피를 못 잡을 수 있다. 혼자서 해결이 힘들니 필히 상의하자.
 辰	64년생: 새로운 만남과 장소에서 길감이 있다. 76년생: 본인의 역량을 잘 알아야 운이 열린다. 88년생: 먼저 배려하면 반드시 행운이 있다. 00년생: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으려다 놓친다.	 戌	70년생: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무는 것이 좋다. 한 밤에 좋은 손님이 올 수도 있겠다. 82년생: 뜻 밖의 친구가 찾아와 즐거운 날이다. 94년생: 원래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도 없다.
 巳	65년생: 가족들의 불만이 없도록 신경쓰자. 77년생: 무턱대고 일을 맡아 책임지려 말자. 89년생: 많은 사람을 만나니 시끄러운 날이다. 01년생: 오락가락하는 마음부터 다스려야한다.	 亥	59년생: 때론 지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길하다 71년생: 정당한 행동만이 큰 재물을 얻는다. 83년생: 이성과 지혜로 현상유지에 총력하자. 95년생: 골치 아팠던 애정관계가 해결되겠다.

출발전
행선지 파악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운행전~~

경제적인 주행코스 선택하기

GREEN ENERGY